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서면질문 · 답변서

안 산 시 의 회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정 승 현 의원

2.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인한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국, 도비 집행 잔액과 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문제점

본의원은 지난 2006년 상임위와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즉 융자 건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일반회계로의 전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계연도 중간에 긴급 세출사안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580억원에 이어 2008년 올해 역시 252억원 두건 모두가 사실상 세수로 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세수로 편성한 결과, 즉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또한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가능하다며 자신

있게 세수로 편성한 결과 이같은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건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평균 4.9%의 이율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40억7천6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못하고 시의 일반회계로 예탁함으로써 통합기금 자체적으로는 이보다 다소 높은 40억9천여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7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수차례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결국 이같은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다방면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논의하고, 그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이 때에 효율적 재정운용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 다음 국,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나 도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주문할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즉 1년 동안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시된 국, 도비 편성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대상을 발굴하고 이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05년 반납액이 국비 24억7천6백만원, 도비 44억7천만원, 06년 국비 20억7천4백만원, 도비 17억5천만원, 07년 국비 40억2천9백만원, 도비 25억3천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 시비 역시 국, 도비 내시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각각 101억, 47억5천, 44억4천여만원이 길게는 1년에서 짧게는 수개월 동안 쓰이지 못하고 결국 사장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3천억에서 4천억원이 결국 회계연도 말에 반납됨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각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 도비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정부나 도 예산 편성시 일괄적으로 내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리고 일반적 통계가 아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구체적 통계에 의해서 내시 할 것과, 내시된 국, 도비에 대해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나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 총 1,529억원의 기금중 고유목적사업비로 153억4천7백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보면 사업이 지체되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설치한지 18년 지난 기금 등 5년 이상된 기금이 13개 기금 중 10개나 되고 있어 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 관리 역시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 운용계획안을 보면 전체 기금 중 목적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 비율이 불과 10%에 지나지 않을 뿐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 시켜놓고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예산 운용방법인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아가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기금의 존, 폐 여부를 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기금의 조례에는 이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성과분석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조례개정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도시형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개의 보건소와 2개의 보건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동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그 이용이 매우 어려운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양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동별 현황을 보면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11월 말 현재 인구대비 동별 이용률을 보면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반월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취약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소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보건소 이용수요가 더 많아야 함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바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모든 시민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 가능토록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 대비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바로 이런 원거리에 위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이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2006년에 580억원, 2008년 252억원 등 무리하게 세수로 편성한 두건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평균 4.9%의 이율을 적용하더라도 년 간 40억7천6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40억 7천여 만원의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 및 적극적인 집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건의 필요
-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조례개정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점 필요

■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서 252억원을 융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국내경제의 침체 등으로 세입이 많이 줄고 있는데 반해, 인구증가 등 도시 전반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추진 등 지출요인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비가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구를 매각하는 세입 예산은 지난 1회추경에 도로포장 및 화정천생태화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하여 44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으로 매각 공고 시 입찰 참여자가 없었으며,

○ 한국농촌공사의 대송단지사업과 연계한 공동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각을 보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매각대금 세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추가세입금 194억원을 제외한 세입결손액 25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부득이 융자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의 최소화 및 적극적인 집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은

-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의 23.8%인 1천 7백 65억원,
-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의 29.6%인 1천 8백 53억원으로
- 주로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의 사업에 지원되어 우리시 재정운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반납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06년도에는 39억원, 2007년도에는 65억원을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 현재 국회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 보조사업의 당초목적에 달성하고,
 - 외부요인이 아닌 자체노력(원가심사 강화 및 신공법 적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 해당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당초목적에 완료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은 국가나 도에 반납하지 않고, 유사한 목적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 ▶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유자금은 총 1,529억원으로 2009년도에는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하여 162억원의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기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와 13개 개별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해오고 있어 기능 중복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한 존속기한 설정 등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온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로 구성하고, 개별기금심의위원회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조정과,
 - 기금 존속기한 설정 및 사업성과 분석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2009년 2월중에 추진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 아무쪼록 향후 기금 조례 개정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승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점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도로법과 동법시행령개정을 통해 전선 등의 공중선 역시 점용료 대상으로 지정할 것은 물론, 점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 필요함.
- 만일 이러한 안이 불가능하다면 가로등과 보안등 등의 공공목적의 전기 요금을 이에 상응하는 만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시에서도 한국전력이 신고, 납부한 전주 도로점용료 개수가 실제개수와 맞는지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먼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과 도로점용료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전선 및 공중선은 허가대상에는 해당되나,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음으로 이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 등 상급기관에 법령 질의한 결과,
-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할 수 없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산정방식을 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으며,
- 점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도로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2에 의하면 점용료 산정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도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 등의 공공목적의 전기요금 인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전기요금 결정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생산원가와 물가 등을 분석하여 인상·인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심의 후 인가·결정 고시하는 사항으로

○ 도로점용료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시민 세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인하 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한국전력이 신고한 전주와 실제개수가 맞는지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에는 광활한 지구에 많은 수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고, 지목별 구분을 통한 도로상 전주 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선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출 받아,

- 1차적으로 시에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결과가 미진할 시 조사인력 총원과 소요예산 확보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상대적으로 보건소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사업은 도시지역이면서도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 보건소 수준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타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강화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 우리시도 시 외곽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반월동 지역에 2007년부터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건물 임차시에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고 신·증축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반월동 의용소방대 부지 및 반월역 환승주차장 일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여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곡동 지역 또한 보건소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고 민간의료기관이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 그러나 우선은 그간 추진해온 반월동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후에 적정인구, 이용거리 및 집적효과, 취약계층 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부곡동을 중심으로 안산동과 월피동을 연계한 보건지소 설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부곡동 주민의 보건소 이용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조정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 확대와 만성질환관리, 일반 및 한방진료에 대한 이동진료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62회 안산시의회(정례회)

시 정 질 문

김 명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 2동, 선부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명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전역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플라타너스 등 총 15종에
7만7천7백56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2009년도 가로수 조성
생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예산으로 1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시민에게 숲과 공기, 그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수를 잘 기르고 관리하여 안산천, 화정천변의 느티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수형과 단풍으로 명소가 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가로수는 수종에 따라 수종갱신도 필요한 실정이며, 토질과 관리 불량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수형 또한 불품없이 망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미 식재된 7만여 본의 가로수를 안산시의 명소길로 만들고, 녹색도시의 상징으로 삼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는 대부분 인도에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 하부는 보도 블록과 아스콘으로 덮여져 있어 수분 부족과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 어떤 지역은 빗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포장되어 있어 가로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자란 가로수가 2-3미터에 불과한 것도 많은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나무의 성장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가로수 주변의 빗물의 흡수와 시비 등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로수 하부의 포장 등을 제거하여야만 하며, 또한 가로수와 가로수 간의 공간에는 포장을 제거하고 소폭의 녹지를 조성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은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고 녹지 확대에 쾌적하고 푸른 도시건설에도 좋은 방안이라 여기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녹지와 가로수의 낙엽활용방안입니다.

최근 낙엽쓰레기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에서는 가로수, 공원수목 등에서 떨어진 낙엽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양질의 퇴비 원료로 재활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낙엽 퇴비화는 낙엽만 수거하여 공용봉투와 마대에 담아 일정 장소에 모아 재활용수거 차량으로 구미시의친환경영농조합 퇴비장에 1일 약 7.8톤(발생량의 30%)을 무상 공급하여 “애물단지인 낙엽쓰레기”를 원료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지력증진으로 농업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수거처리비용 천오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용인시 기흥구에서도 공원 및 쉼터 70여 곳에서 발생하는 100여 톤의 낙엽을 모아 관내 농가 및 화훼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친환경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낙엽은 1년 정도 발효시켜 질 좋은 부엽토를 만들어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며 부엽토를 사용하면 지렁이가 생겨나 모든 작물 뿌리에 나타나는 선충 피해를 감소시켜 토양의 질도 높아지고 양질의 작물 생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매년 녹지와 공원,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많은 낙엽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낙엽 때문에 봉투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 누가 아름다운 활엽수를 식재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로수와 녹지, 공원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폐기물로 처리하지 말고, 일부는 자연적으로 두되, 나머지는 타시처럼 재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엽의 재활용은 가로환경을 보호하고 나무 식재량을 늘려주며, 농가의 농업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처럼 환경보전과 예산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낙엽의 처리 방안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색도시 안산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가로수의 환경개선과 낙엽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가로수는 대부분 인도에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 하부는 보도블럭과 아스콘으로 덮여져 있어 수분 부족과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 또 어떤 지역은 빗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포장되어 있어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로수 주변의 빗물의 흡수와 시비 등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가로수와 가로수간의 공간에는 포장을 제거하고 소폭의 녹지를 조성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은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고 녹지 확대에 쾌적하고 푸른 도시건설에도 좋은 방안이라 여기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 가로수는 특성상 보행이 많은 인도에 식재되어, 보도블럭 및 아스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빗물의 흡수가 저하되어 수목의 원활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세가 쇠약한 가로수에 시비와 유공관 설치 및 토양을 개량하여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가로변 띠녹지는 빗물을 흡수하여 나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갈수기에는 수분을 배출하여 도시 열섬화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가로녹지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가로 떠녹지 조성’을 통한 수목의 건전한 생육환경 제공 및 풍부하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 향후에도 안산시의 가로수 및 가로환경이 녹지축을 이룰 수 있는 녹색도시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녹지와 가로수의 낙엽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최근 낙엽쓰레기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으며, 가로수, 공원 수목 등에서 떨어진 낙엽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양질의 퇴비 원료로 재활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가로수와 녹지, 공원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폐기물로 처리하지 말고, 타 시처럼 재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낙엽의 재활용은 가로환경을 보호하고 나무 식재량을 늘려주며, 농가의 농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환경보전과 예산절감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낙엽의 처리 방안을 개선할 의향은?

-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녹지율 74%의 풍부한 녹지와 공원을 갖춘 『녹색 웰빙 도시』로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 가로수와 녹지는 시원한 그늘과 함께 마음을 푸르게 해주고, 가을이면 빨강, 노랑 형형색색으로 변하여 아름다운 단풍을 가까운 거리와 공원에서 볼 수 있게 해 주기도 합니다.
- 그러나, 낙엽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중심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 의원님께서 낙엽 재활용방안을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낙엽을 소각하지 않고
농가나 화훼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낙엽의 일부를 원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호수공원 앞 유채 밭에 보온용으로 낙엽을 덮는 등 재활용
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보다 많은 낙엽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퇴비화
사업을 금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와 다른 자치단체의 처리실태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
마킹하여 모든 낙엽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계속해서 성준모 의원님, 송진호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돛구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현대건설, KBO, 현대증권, 안산시청이 돛구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의회에 공식적으로 결과보고를 한 적이 없고, 이후 진행상황 체크시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은 이후 돛구장을 어떻게 진행시킬 계획인지?

- 안산문화복합돛구장 건립사업은 2007년 5월에 현대컨소시엄에서 단원구청사 및 일반야구장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토지대금과 개발이익금으로 돛구장과 구청사 건립을 제안한 사업으로
- 우리시에서는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통한 야구돛구장과 단원구청사 건립은 시의 재정여건과 구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 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공공시설의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고,
- 특히 2만석 규모의 일반 야구장 건립 부지에 야구박물관 등 첨단 시설을 갖춘 야구돛구장을 국내 최초로 건립함으로써 우리시가 스포츠 메카로 발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대컨소시엄과 MOU 및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대컨소시엄측과 실시협약을 위한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에 저촉되어 지속적인 협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지난 10월 25일자로 현대컨소시엄과의 협약은 자동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적인 검토 부족으로 협약을 무산시키고, 시의 신뢰를 실추시키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은 앞서도 언급 하였듯이 합리적인 토지활용은 물론, 공단배후도시라는 부정적인 도시이미지의 불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사업으로 믿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 초에 돔구장 개발 사업의 적정성 및 운영방법, 운영수지, 도입시설 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세계적인 명품 돔구장이 국내 최초로 우리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성준모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의향은?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이며 오염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처방적인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금년 6월에 『안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자전거 안전사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전거 전용보험 도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난 11월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범정부적인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이 자전거 사고 확률에 관한 연구, 참조

위험요율 산정 등의 작업에 착수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보급될 것으로 예견될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추이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전용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보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성준모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반월공단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공단설립자인 중앙정부와 안산시 및 경제단체가 주체가 되어 반월공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법정기구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에 조성되어 30여년이 지난 지금
기반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산업구조고도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제조업체 기술혁신
지원을 추진하여 염색, 피혁, 도금분야 330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기술지원 요청하여 업체당 약 4천 5백여 만원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실시된 반월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용역
내용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업종구조고도화 사업으로
93억이 책정되어 향후 지원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정
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 현재 우리시는 물론 경기도나 중앙정부차원에서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기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송진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법정동명과 행정동명의 일원화 계획과 월피동사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월피동은 그동안 법정동 구역과 행정동 구역이 달라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위치 또한 법정동명이 다른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진정한 행복도시 안산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역명 정착에도 노력해야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배치 외에 행정동과 법정동명의 일원화 및 월피동사무소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 안산시의 행정구역은 25개의 행정동과 30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동은 공식적인 공문서상에 표시되거나 주소로 쓰이고, 행정동은 행정편의에 맞게 설치된 동으로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행정동으로 나눠서 관할할 수도 있고,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할 수도 있으며,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월피동도 월피, 부곡, 양상동의 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법정동 부곡동이 산업도로를 경계로 행정동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화는 우리시의 경우 30개의 행정동을

설치해야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부에서도 소규모 동
통폐합 및 대동제로의 전환 등 조직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안산시세의 확장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 아울러, 월피동주민센터 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월피동 내에
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만한 공용청사 부지가 없어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동 청사 이전에 대한 부지확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송진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낭운동장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지역 주민들과 체육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시설로 전락한 시낭운동장을 민간투자(BTL) 등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종합 스포렉스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임.
 - 시민들의 건전한 레저활동과 생활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의 개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 2007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조사 결과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65.9점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행복도는 79.6점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자가 느끼는 행복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경제적 효과로는 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서는 국가위상제고를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어, 그런 면에서 각종 레저스포츠의 중요성과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시낭운동장은 1989년 11월에 건립되어 각종 체육대회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 재정여건상 자체예산으로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추진은

어려우며, 별도의 수익시설이 없는 한 민간투자자가 선풃
나서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 내년도 상반기에 시낭운동장에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주요시설
및 시설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강 기 태 의원

사1동, 사2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기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 안산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박주원 안산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경기지역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지역의 경우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2005년도 77건, 2006년도 81건, 2007년도 72건, 2008년도 8월 현재 64건으로 경기지역 중 부천, 광명, 시흥, 김포, 기타 타시군보다도 안산시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천명당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0.35명인데 반해 안산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율은 1.55명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발생율에 비해 아동이 신고 되고,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안산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인구수가 74만인 우리 안산시에도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의 자진신고, 발견, 현장조사, 응급보호 치료 및 학대가정의 사후 관리, 상담원교육, 아동학대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도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실시

두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범실시 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보도 옆에 좁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자전거 도로는 위험하고 유명무실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보도에서 타면 불법이며 보도나 건널목에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특례법상 중과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 안산시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운동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관내 출장을 가도록 하는 것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변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정책은 실패하며 한낱 구호로써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시범, 실시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면 향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의 시범실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로다이어트는 기존의 차로 수를 줄이지 않고 차로 폭을 좁혀 폭 2m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존의 자전거 겸용 도로 건설은 투자에 비해 효용성이 거의 없어 자전거 정책의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안로 등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자원봉사자 운영

세 번째 질문은 행정지원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로만 자원봉사자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58개국의 3만3천여명의 등록외국인과 4~5만여명의 비등록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향후에도 경기의 전망에 따라서 외국인이 증가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시에는 원곡동 지역순찰을 위하여 2명의 외국인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수 공무원 1인당 시민의 수가 4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 단 두명만의 외국인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점차 심각해져가는 외국인 관련 방법, 언어소통, 보육, 보건, 아동교육, 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방식과 국내각종 기초생활법규를 익히게 하고 또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전달한다면 다문화의 선두 주자에 있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화합에 필요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시의 시책은 외국인 다중집합 거주지역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추진되고 활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조속하게 다양한 외국인 자원봉사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자원봉사자 구성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자전거 주차장 근무 인력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알선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속가능 물류법」에 의해 지하철역, 철도역, 항만, 여객터미널에 자전거를 둘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의무제를 실시하는데

이 주차장대여소의 관리인력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들을 채용하여 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산시의 65세이상 인구수는 총 4만1천명으로 남자 1만6천명과 여자 2만5천명으로 현 안산시 인구 74만명 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장애인수는 2만8천명에 해당하여 안산시 인구의 3.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의 10%정도가 사회적 약자로 소외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는 경제적인 약자인 노령층과 장애인 일 것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경기악화는 그들을 거리로 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탁사업에 있어서 고도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속가능 물류법」에 의해 지하철역, 철도역, 항만, 여객터미널에 자전거를 둘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주차장대여소의 관리 인력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들을 채용하여 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상록구에 대학병원 급의 종합병원 유치를 적극 검토 요망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상록구에 유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에 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유치는 사회적 요구의 증대로 관내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복지혜택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어있고

둘째, 질 높은 의료복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 수원의 아주대 병원이나, 빈센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이탈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 전문 의료기관을 안산시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이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고

넷째, 의료기반 시설의 확보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섯째, 국내·외 특화 명품병원으로 발전시켜 도시이미지 제고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병상 수는 25만 8천7백 5십6병상으로 인구 천명당 5.3병상인 반면, 우리 안산시는 3천 병상으로 인구 천명당 4.1병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천명당 1.2병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산시의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종합병원 수요 예측에서 2010년에는 5개의 종합병원이 필요하며 2015년에는 6개소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상록구청사 일부 만여평에 좋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해서 강기태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이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기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인구수가 74만인 우리 안산시에도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의 자진신고, 발견, 현장조사, 응급보호 치료 및 학대가정의 사후 관리, 상담원교육, 아동학대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 우리시의 아동은 총 인구대비 25%인 18만2천여(18세미만)명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 현재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개소(수원,의정부,성남,부천,화성,고양,남양주)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부천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산, 부천, 광명, 시흥, 김포시)

○ 최근 아동학대나 성폭력은 가정이나 학교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종합사회복지관,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경기도에 보호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권자 :도지사)
-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개정·공포 시행되면 우리시에서도 준비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도로다이어트는 기존의 차로 수를 줄이지 않고 차로폭을 좁혀 폭 2m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자전거 경용 도로 건설은 투자에 비해 효용성이 거의 없어 자전거 정책의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안로 등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
- 고유가 에너지난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물론 도심지 및 공단지역의 가로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정비 종합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 본 계획에는 반월공단 5개 노선 14.84km, 주거지역 5개 노선 18.2km를 내년부터 2011년까지 38억여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은 우리시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창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우선 내년에는 반월공단으로 자전거 출·퇴근 이용이 가장 많은공단길 4.5km 구간을

차로 폭을 축소하여 특수페인트로 도색하는 등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안로, 해봉길 등 반월공단 주요 진입도로를 비롯하여 시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도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시민이 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구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접근성이 좋은 상록구청사 일부 만여평에 좋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 우리시가 2020년에는 인구 93만명의 거대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걸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시에서는 삼성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왔으나, 수도권 타 지자체에 비하여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록구청 주변부지는 교통관제센터, 상록경찰서, 노인요양병원, 안산문화원등이 입주하여 복합 행정타운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 노인요양병원의 증축과 청춘대학 등 계획 중인 부지를 제외하면 9천평의 여유부지가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종합병원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되며,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기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58개국에 약 7만에서 8만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원곡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의 경우 향후에도 외국인이 증가할 여지가 많음.
- 시의 시책은 외국인 다중집합 거주지역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추진되고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에서는 조속하게 다양한 외국인 자원봉사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자원봉사자 구성에 대한 시의 입장은?

- 말씀하신대로 등록 및 미등록을 합하여 약 6만에서 7만에 달하는 거주외국인이 생산현장에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5년 5월 17일 외국인복지과를 정식 기구로 발족한 후 현장행정을 위한 외국인주민센터를 2008년 3월 신축·기지화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안산시 거주 외국인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거리청소, 태안기름 유출방제작업 등 간헐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08년 11월 21일 외국인 근로자도 이젠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안산시의 주민임을

인식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자원봉사대를 구성·운영하기로 내부적 결정을 한 후

- 이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순찰대, 통역 자원봉사센터, 하모니편집위원회 등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가고 기타 환경, 복지, 치안, 청결운동 등 다방면으로 내국인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가칭 “안산 글로벌자원봉사대”를 구성 운영코자 준비하고 있어
- 내년부터는 거주외국인 자원봉사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보다 조직적, 지속적으로 전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강기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주차장 근무 인력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알선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주차장대여소의 관리 인력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들을 채용하여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안)이 지난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자동차 통행량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 시책 및 자전거 통행의 활성화 대책 수립 등 추진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항을 비롯하여 10여개의 조항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42조(자전거 연계교통시설 설치)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자전거와 다른 교통수단간 연계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 등 연계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주차장 관리와 연계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우리시와 컨소시엄을 체결한 안산 YMCA 주관의 녹색자전거 희망사업단이 노동부에서 3년간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되어 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를 비롯하여 시민 자전거 교육장 운영, 방치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시와 함께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국가적 과제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공공목적 수행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등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밀집 지역인 상가지역에 더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해 교통난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와 같은 금융상황에서 투자자를 적기에 찾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서 보듯이 투자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갖가지 변칙을 자행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은 고잔동 상가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차도 폭이 당초 8m에서 4m로 축소됨에 따라 양방향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수요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주차면수 산정은,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예상하여 필요로 하는 주차면수 대비 최소 범위에서 반영한 사항이므로 이로 인한 주차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의 고잔동 상권은 안산시의 대표적인 상권이나 노후화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민설문 조사

결과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에 대해 인근주민들의 76%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고잔동 상인협회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시 가용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최적의 대안으로 BTO 민간투자 방식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 더불어, 본 개발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의 장점을 살려 시설 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사업추진 시기를 다소 조정 하는 등 가변적인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고의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상부는 주민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화와 더불어 랜드마크적인 공용주차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판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도시 지역에 설치된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시가 고잔신도시 지역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과연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 지역 상인들은 고객의 주차료를 대납하는 등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에 상인을 두 번 죽이는 행정력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료 주차장을 시행할 계획인지 ?
- 또한 무리한 노상 주차장 사업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년전 우리시의 인구는 55만 2천 557명에서 금년 11월말현재 74만 1천 409명으로 34% 증가하였으며,
- 자동차등록대수는 1998년말 13만 6천 109대에서 금년 11월말 현재 24만 6천대로 81%가 증가하여 주차문제는 도시문제의 큰 현안으로 대두하였으며, 특히 저밀도 주거 밀집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코자 약 3천 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총 126개소에 주차면수 1만 7천 184면을 확보하는 주차정비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주차장 확충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 이외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에 한계가 있으며, 주차장 확충은 또 다른 주차 수요를 유발하여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는 이미 주차장 시설 확충 등 시설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을 축소하거나 무료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등을 통해 주차수요를 억제 관리하는 수요관리주차정책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 신도시 지역의 주차문제는 주차타워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거리가 다소 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통행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장기 주정차 및 이중 주차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화재 등 비상시 긴급 차량 통행로 미확보 등의 문제 또한 시급하였습니다.
- 한편으로는, 노상주차장 없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상가 방문자들이 노상에 주차하였다가 견인되는 등의 불편을 겪음으로써 지역상가 방문을 꺼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신도시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민원 또한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노상주차장 사업을 주차정비10개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05년 4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신도시 노상주차장에 대한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시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2008년 4월 10일 이동에서 사업 시행 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08년 5월 2일 호수동(초지동 포함)에서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시군의 추진 사례를 비추어 보면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와 반대가 있었으며, 이제는 제도가 정착되어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지역 상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노상유료주차장 사업이 안산시시설관리 공단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신도시노상주차장을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2008년 10월 한달간의 수지를 살펴보면, 수입은 6천1백 65만 7천 98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가 5천6백 80만 9천 750원, 초기투자비 8백 67만 640원, 고정운영비 88만 7천 40원 등 총 6천6백 36만7천 430원으로 월간 4백 70만 9천 450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될 경우 특정 사용자로 인하여 상가 방문자들이 장기간 고충을 겪거나, 주차장 앞 상가에서 의자 등으로 점유 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상가 방문자와 상가입주자간 다툼이 발생 되므로, 단시간의 회전율을 위해 노상주차장의 유료 운영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도시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여 화재 등 비상 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상가이용 고객에게는 주차편리를 제공하여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